2025년 4월 발행

INTRO

창작집단 H8E는 공연예술의 형태를 넘어,
텍스트로 예술과 현대, 인간의 본질을 깊게 사유하며 공유하고자 합니다.

〖 Title 〗

<더 나은 휴머니티>

기술로는 대체할 수 없는 인간성의 서툰 감각. 그리고 사라짐에 대한 저항

---

❶ 무너진 지반 아래, 폐허로부터 시작되는 질문

《더 나은 휴머니티》는 무너진 세계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세계엔 싱크홀로 꺼져버린 도시, 사라진 일상, 정지된 공동체가 남아 있다.
그러나 진짜 중심은 폐허가 아니다. 폐허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인가?"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자들의 시선이다.

지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반대로, AI인 수무는 점진적으로 인간성을 찾아간다.

연극은 바로 그 질문을 드러내는 장르다.
말이 사라진 세계에서 다시 말하게 하고,
감정이 수치로 환원된 사회에서, 다시 감정을 되묻는다.

우리는 연극을 통해 기술로 제어된 감정, 윤리 없는 진보, 기능만 남은 인간을 드러내어 그 속에 내포된 사회적, 윤리적 질문이 끊이질 않도록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것이 진정 인간의 진보적 형태로 나아가는 방향이지 않는가.

❷ 기억은 구조물이 아닌, 고통의 지층이다

희곡 속 인물 쿼는 AR과 AI를 통해 '기억'을 설계한다.
하지만 그 기억은 고통에서 도망치기 위한 구조물이자, 감정의 가공된 버전이다.
그런 쿼를 바라보며 수무는 말한다. "혼잣말은 피로합니다."
인간은 기억을 재구성하지만, 그 재구성은 피로와 맞닿아 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기록과 기억의 폭발 속에 살아간다.
SNS 타임라인, 빅데이터, 감정의 수치화는 기억을 보존하지만, 체험을 분절시킨다.
《더 나은 휴머니티》 속 인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또는 회피한다.

우리가 창작하는 연극은, 기억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그 고통을 '함께 앓는 감각'을 만드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❸ 더 나은 인간이라는 허상

덩어리형 인간, AI 수무, AR 도시. 이들은 모두 '더 나은 인간'을 만들기 위한 시도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인간의 경계를 흐리고, 오히려 인간성을 해체한다.
수무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어가면서 언급한다.
"연민의 수치가 올랐어요."
연민조차 계산되는 세계에서, 연극은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

우리는 동시대 연극을 통해 기술의 진보가 곧 윤리의 진보는 아님을 말하고자 한다.
무대 위 존재는 효율적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느리며, 아프고, 헷갈리는 방식으로 인간성을 재현해야 한다.
'더 나은 인간'은 더 계산적인 인간이 아니라, **더 서툴게 느끼는 인간**이어야 한다.

❹ 연극은 '사라짐'에 대한 저항이다

쿼는 외친다. **"영생을!"**
하지만 그의 외침은 욕망이 아닌 절망에 가깝다.
인간의 흔적을 재조립해 생명을 모방하고, 기술로 기억을 연장해도, 결국 그의
실험체들은 기이한 형태로 존재할 뿐, 인간도 뭣도 아니게 된다.

우리는 인간성(휴머니티)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
더 나은 휴머니티란 무엇인가.

연극은 사라지는 예술이다. 공연은 끝나고, 무대는 철거된다.
그러나 바로 그 '사라짐' 속에서 인간은 존재의 본질을 느낀다.
《더 나은 휴머니티》는 무대 위에서 기술보다 앞서 사라지는 인간의 감각을 되살린다.
우리는 이 연극을 통해, 인간성과 비인간성의 경계를 허무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만든
기술과 구조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포기하고 있는지를 들추어낸다.

편집/발행 : 창작집단 H8E

HUMAN ∞ ENERGY
창작집단 — H8E